

# 영암군, 추모·기억 복합문화공간 현충공원 착공

## 올해 상반기 준공 목표로 영암읍 교동지구에 충혼탑·기억의벽 등 건립

영암군이 23일 영암읍 교동지구에서 지역 보훈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 현충공원 착공식'을 열고, 국가유공자 등을 기리는 추모·기억의 공간 조성에 착수했다.

영암 현충공원 조성사업은 추모·기억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워 복돋울 수 있는 경관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유족과 참배객들의 이동·접근 편의성도 높인다.

현충공원은 4,869㎡ 부지에 총사업비 23억4,000만원을 들여 ▲충혼탑 ▲기억의

벽 ▲기념광장 ▲휴게공간 ▲산책로 등을 갖춘다.

영암군은 입지 선정 단계부터 보훈단체 회원,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공사 기간 안전관리 강화, 주변 불편 최소화 등 만전을 기해 건립을 마치고 영암군민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현충공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성되는 공간이다. 영암군민 누구나 찾고 기억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암 현충공원 조성사업 안전기**  
영암군은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민 참여 추모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 장성군, 조류독감 청정지역 사수 총력

### 김한중 군수 "체계적 대응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

장성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걀을 낳는 닭(산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장성군은 이달 말까지 '산란계 농장 특별관리기간'을 갖기로 하고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담당 공무원 지정 배치 △축산차량 농장 내 출입 통제 △방역사할 위반 여부 점검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축산차량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유

입·확산을 막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산란계 및 오리 사육 농가 부근에 별도의 방역초소도 구축했다.

그밖에 소독 차량을 이용한 가금류 농가 소독도 매일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 소독은 축산농협 공동방제단이 지원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경기·충청·전라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이 예사롭지 않아 방역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담양군이 '복지위기 알람 앱'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담양군은 생계, 의료, 돌봄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본인 또는 주변인의 도움으로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람 앱'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람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 담양군, 복지위기 알람 앱 통해 위기가구 신속 지원한다

### 도움 필요한 주민, 앱 통해 간편하게 위기 신고 가능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위기 당사자는 물론 가족, 이웃 등 주변인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이웃 위기 알람의 경우 익명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복지담당 부서로 즉시 전달돼 상담을 거쳐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가 연계된다.

담양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협의회, 독거노인생활지원사 등 지역 내 인적 안전망과 연계해 앱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복지위기 알람 앱을 통해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기 알람 앱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복지위기 알람'을 검색해 설치하거나 복지정보포털 '복지로'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담양/이중옥 기자

진도군은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정주여건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 후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각 읍면 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 수요 조사를 시작했고, 11월부터 건설과에서 현장 조사와 실시계획을 병행 추진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올해 2월 안에 조기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진도군은 마

## 진도군, 실현·정주 여건 개선해 생활편익 증진

### 주민숙원사업(67억 원) 조기 추진으로 체감 행정

을안길 정비, 농로 개설과 포장, 배수로와 개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244건, 6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특히, 진도군은 실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전체를 직접 현장 방문해 이장과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

했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설계를 통해 공사 품질의 향상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진도군은 총 244건 중 현재 149건의 공사를 발주했고 2월 안에 남은 95건을 발주해, 농번기 전에 전체 공사를 완료할 방침

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주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농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 주민들의 영농 활동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주민숙원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 군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 완도군, 41억 투입 대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 전기차 보급·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완도군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국·도비를 포함해 총 41억 원을 투입, 대기질 개선과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이동 오염원의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 33억 원을 투입, 전기 승용차 127대, 전기 화물차 77대, 전기 버스 3대, 전기 이륜차 29대, 수소 승용차 2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차종별·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며, 지원 대상 차종, 지원 금액은 2월 초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 완도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륜차는 만 16세 이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중앙행

정기관은 제외) 등이다.

전기 자동차·이륜차 구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이륜차 판매사에서 계약하면 판매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대행하며, 계약한 차량의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감축 사업도 추진한다.

9억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4·5등급) 212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며,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전기 지게차 보급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을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만들고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양시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시청 창의실에서 '202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 추진 전략과 실행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부시장과 국·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51개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 '평생 살고 싶은 광양' 실현 위한 시정 전략 점검

### 총 580여 개 사업 점검... 시민 중심 미래 시정 방향 모색

총 57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2026년 시정 운영의 핵심 과제와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주요 보고 내용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

책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AI 및 디지털 기반 철강산업 고도화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광양항 북극항로

거점 육성을 위한 역점 사업 ▲매화축제와 관광시설 확충 등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기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부서 간 협업 체계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